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김도균**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주요어: 가교일자리, 자영업 빈곤화, 이동성, 상향이동, 하향이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3A292347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dkkim@gri.re.kr)

1. 문제제기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 가입국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6%인 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6%로 평균보다 10% 포인트가 더 높다. 자영업자 비중이 30%를 넘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 정도만이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는 경제규모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 불가능한 국가들이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 터키, 멕시코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국가가 1차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김태일, 2017: 34-35). 반면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일본, 독일에 견줄 정도로 높은 편이고, 1인당 GDP 수준도 그리스, 터키, 멕시코보다 높다. 이렇게 소득수준이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업과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40-50대 화이트칼라들이 일종의 실업대책으로 자영업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증가한 바 있다.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50-60대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했던 것이다(금재호 외, 2009; 김복순, 2011; 이승렬, 2011). 이런 점에서 중·고령자들의 상당수는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성지미·안주엽, 2004; 장지연, 2003). 정부 또한 마땅한 소득보장 수단이나 고용보장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영업을 일종의 실업대책이자 노후대책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다(김도균, 2015).

그렇다면 자영업은 어느 정도 실업·빈곤탈피 효과가 있었는가? 최근 중·고령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자영업 가구의 빈곤화 혹은 소득창출 능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반정호, 2012; 성지미, 2011). 하지만 자영업 빈곤화가 자영업 중·고령화에 따른 결과라면 연령별로 자영업의 빈곤화 여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50대 이후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별로 소득계층 이동 분석을 통해 자영업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들이 실직이나 퇴직에 직면하여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것이라면 주된 일자리에서 종사할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소득수준 하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의 상대적인 빈곤탈피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고용상태별 소득계층 이동을

비교함으로써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가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소득 분위에 따른 이행행렬을 분석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행행렬 계산을 통해 Shorrocks(1978)가 제시한 이동성 지수와 함께 이동의 방향성까지 고려하고, 연령집단별로 패널로 짓 분석을 통해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계층 상향이동의 영향을 살펴본다. 가구주의 고용상태는 종사상지위와 고용안정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기존연구검토

1) 자영업 결정·지속요인

지금까지 자영업에 관한 연구들은 자영업 결정 요인과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자영업 선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인 유인가설과 구축가설 중 어느 것이 한국의 자영업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유인가설이 경제적 유인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보는 반면, 구축가설은 실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인가설은 경기가 좋을 때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위험감수경향이 높은 청년층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구축가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중·고령자나 저학력·저숙련 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계층 중심으로 자영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Georgellis et al. 2005; 이병훈·신재열, 2012; 지은정, 201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결정요인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유인가설보다는 구축가설을 지지한다(김우영, 2000; 안주엽, 2000; 김기승·조준모, 2009; 전병유, 2003). 거시적으로 보면 그 동안 실업율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전병유, 2003), 업종별로도 자영업은 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생계형 자영업 분야에서 증가 경향이 뚜렷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자영업 이행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승·조준모, 2009; 김복순, 2011; 전병유, 2003; 지은정, 2012; 조준모, 2006).

자영업이 중·고령자의 가교일자리로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도 구축가설을 잘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리한 사실은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김복순, 2011; 이승렬, 2011; 장지연, 2003; 성지미·안주엽, 2004; 전병유 외, 2008). 그런데 이렇게 실직·퇴직의 위험에 노출되어 노동시장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중·고령자 집단을 중심으로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인가설보다는 구축가설과 더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 지속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영순·박미현, 2013; 박미현, 2012; 안주엽·성지미, 2003). 왜냐하면 중·고령자의 폐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가능성과 빈곤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안주엽·성지미, 2003).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업체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요인은 다시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속성으로는 연령과 성, 인적자본 속성으로는 학력 수준과 동일업종 경험, 자영업/임금근로 경험 여부, 경제적 속성으로는 가구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 지속기간이 짧으며, 반면 동일업종 경험은 지속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요인으로는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지속기간이 짧으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영업 지속기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안주엽·성지미, 2003).

2) 소득이동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대내 소득이동에 관한 연구와 세대간 소득이동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세대내 소득이동에 관한 연구로 국한해서 기존 연구 경향을 살펴본다. 세대내 소득이동에 관한 연구들로는 김혜련(2007), 석상훈(2009), 성명재(2011), 강신욱(2011),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 윤정열·홍기석(2012), 김용성(201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상당수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동성이 하락해 왔다고 주장한다. 석상훈(2009)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 소득계층이동이 하락해 왔으며, 특히 소득분위 양극단에서 동일 계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증가해 왔다고 주장한다. 절대적 소득계층이동의 측면에서는 진입과 탈출이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빈곤층으로부터 탈출보다 빈곤층으로의 진입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계층상승 가능성이 약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은 소득계층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어서 1999년~2008년 10년 동안 소득이동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은 점차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성명재(2011)와 강신욱(2011)의 연구도 그 동안

소득이동성 저하와 함께 빈곤탈출 확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성(2014)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학력 계층에서 이동성 하락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2006년 이전에는 고졸 이하 학력계층이 대졸 이상 학력계층에 비해 소득이동성이 높았으나, 2006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이동의 방향성까지 고려할 경우 2006년 이후 고학력 계층의 경우는 상향이동 경향이 더 컸던 반면, 저학력 계층의 경우에는 하향이동 경향이 컸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세대내 소득이동성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혜련(2007)은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9-2002년과 2003-2006년 두 기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2006년 동안의 소득이동이 1999-200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윤정열·홍기석(2012)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2008년 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득분배는 악화되었지만 이는 고령인구 증가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이동성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30대와 40대의 소득이동성이 5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 소득의 일시적 변동은 소득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이동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소득분배나 소득이동성이 단순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라면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3) 기존연구의 한계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중·고령자들이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반정호, 2012)을 주로 다룰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특히 자영업이 50대 이후 가교일자리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면,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이 다른 가교일자리와 비교해서 실업·빈곤탈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들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이동성을 다룬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인생 후반기의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퇴직이나 실직의 위험에 놓인 중·고령자들에게 괜찮은 임금근로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은 불가피한 선택일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임금근로 일자리와 비교를 통해 자영업

빈곤화 경향을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자영업이 최소한 가교일자리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즉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인생 후반기 자영업 선택으로 소득계층이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가교일자리 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에 비해 빈곤화의 속도를 상당히 늦추는 효과가 있다면 자영업은 그런대로 괜찮은 가교일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영업이 다른 가교일자리에 비해 성과가 나쁘다면 자영업은 가교일자리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연령별, 고용상태별로 소득계층 이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다. 연령집단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중·고령자들의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자영업 빈곤화라는 단선적인 주장을 넘어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적절한 수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이행행렬과 이동성 지수

이 글은 소득이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행행렬을 활용한다. 이행행렬은 t 시점과 $t+1$ 시점 간의 소득계층 이행확률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준 것으로 소득이동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Gardiner and Hills, 1999; Jenkins, 2011; 이정희·민인식, 2016). 이행행렬을 식으로 표현해 주면 다음과 같다. t 시점의 이행확률 P_{sk}^t 과 이행행렬 $[P_{sk}^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_{sk}^t = \Pr(y_{t+1} = k | y_t = s)$$

$$[P_{sk}^t], s, k = 1, 2, \dots, 5; t = 1, 2, \dots, T$$

이행행렬을 이용하여 소득이동성을 간단한 지수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행행렬의 대각선상의 값들은 각 소득계층별로 동일한 소득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각선상의 값들이 클 경우에는 이동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반대로 대각선상의 값들이 작을 경우에는 이동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Shorrocks(1978)은 이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아래 수식 R_M 은 Shorrocks가 제시한 이동성 지표이다. $Tr(P_{sk}^t)$ 은 이행행렬의 대각선상의 값들의 합을 뜻한다. 소득이동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Tr(P_{sk}^t)$ 값은 n 이 되고, 이 경우 이동성 지수는 0이 된다. 그러므로 Shorrocks가 제시한 이동성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이동성이 적고, 1에 가까울수록 이동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R_M = \frac{n - Tr([P_{sk}^t])}{n - 1}, s, k = 1, 2, \dots, 5$$

그런데 Shorrocks가 제시한 지표는 이동성의 정도만 보여줄 뿐, 이동성의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행행렬의 대각선 부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상향 이동이 증가한 결과인지, 하향 이동이 증가한 결과인지까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김용성, 2014; Fields and Ok, 1999).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이행행렬 및 Shorrocks의 이동성 지표와 함께 상향이동 지수 R_{UM} 와 하향 이동 지수 R_{DM} 을 제시한다. R_{UM} 과 R_{DM}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T_U 는 이행행렬 $[P_{sk}^t]$ 의 상삼각행렬(upper triangular matrix)의 원소의 합이며, T_D 는 이행행렬 $[P_{sk}^t]$ 의 하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의 원소의 합이다. 모든 케이스가 상향이동 했을 경우 T_U 는 $n-1$ 의 값을 가지며 이때 R_{UM} 의 값은 1이 된다. 반대로 상향이동한 케이스가 없을 경우 T_U 는 0의 값을 갖고, 이때 R_{UM} 의 값은 $1/n$ 이다. 즉 상향이동한 경우가 많을수록 R_{UM} 은 1에 가까워지고, 상향이동한 경우가 적을수록 R_{UM} 은 $1/n$ 에 가까워진다. R_{DM} 도 마찬가지다. 모든 케이스가 하향이동 했을 때 T_D 는 $n-1$ 의 값을 갖고, 하향이동한 경우가 없을 경우 T_D 는 0의 값을 가지므로, R_{DM} 은 하향이동한 경우가 많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하향이동한 경우가 적을수록 $1/n$ 에 가까워진다.

$$R_{UM} = \frac{1}{n - T_U}, T_U = \sum_{s,k=1}^n P_{sk}^t, (\text{단, } k > s)$$

$$R_{DM} = \frac{1}{n - T_D}, T_D = \sum_{s,k=1}^n P_{sk}^t, (\text{단, } s > k)$$

또한 t 기의 s 분위 계층의 상향이동 확률 PU_s^t 와 t 기의 s 분위 계층의 하향이동 확률 PD_s^t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때 PU_s^t 와 PD_s^t 는 0%에서 100%까지 값을 갖는다.

$$PU_s^t = \left[\sum_{k=s+1}^n P_{sk}^t \right] \times 100$$

$$PD_s^t = \left[\sum_{k=1}^{s-1} P_{sk}^t \right] \times 100$$

기존 연구들처럼 이 글도 이행행렬을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행행렬과 이동성 지수, 그리고 상향이동 지수와 하향이동 지수를 구해 연령별, 고용상태별 소득계층 이동을 살펴본다. 연령별,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지수, 상향이동 지수, 하향이동 지수를 계산해서 비교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이동성 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본다. 이행행렬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2) 패널로짓 모형

이 글은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계층의 상향이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로짓 모형을 사용한다.¹⁾ 횡단면자료에서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프로빗(probit) 또는 로짓(logit) 모형을 사용하듯이, 패널자료에서는 패널프로빗 또는 패널로짓 모형을 사용한다. 단, 패널분석에서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모델에 반영해 준다는 점이 횡단면 자료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 u_i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가정하고, 오차항 e_{it} 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후, 확률효과 패널로짓 모형으로 계수를 추정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 \begin{cases} 1, & y_{it}^* > 0 \text{ 인 경우} \\ 0, & y_{it}^* \leq 0 \text{ 인 경우} \end{cases}$$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위 식에서 y_{it}^* 는 관측되지 않은 실제변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하며, y 는 y_{it}^* 의 관측값이 된다. 위의 식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y 는 $y_{it}^* > 0$ 인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y_{it}^* \leq 0$ 인 경우 0의 값을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1인 경우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이 절의 내용은 민인식·최필선(2012)와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을 참고했다.

$$\Pr(y = 1) = \Pr(y_{it}^* > 0) = \Pr(\epsilon > -\alpha - \beta x_{it}) = F(\alpha + \beta x_{it})$$

여기서 함수 $F(\cdot)$ 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고, 추정계수는 최대우도추정량이 된다. 이 글에서는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비교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t 년과 $t+1$ 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상승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하고, 통제변수는 연령과 성별, 학력, 전년도 소득분위를 포함했다.

4. 연령별 고용상태와 소득계층 이동

1) 분석자료

이 글은 2012년-2016년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소득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조사일 뿐만 아니라 샘플 수도 충분히 크다. 그 동안 5년 정도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소득이동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나 자영업자였던 경우가 한 번이라고 있었으면 자영업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영업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자영업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다시 지난 4, 5년간 계속해서 자영업 상태를 유지했으면 계속자영업,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시적 자영업으로 정의했다. 자영업 무경험 집단의 경우에는 지난 4, 5년간 계속해서 상용직의 지위를 유지했으면 안정임금노동,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임금노동으로 정의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으로 분류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임금근로 범주에 포함시켰다.²⁾ 지난 5년간 결측치가 2번 이상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즉 5년간 최소 4번 이상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자료의 기초통계 값은 [표 1]과 같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사대상 총 14,674 패널 가구 중 분석에 포함된 패널 가구수는 총 6,593 가구이다.³⁾ 성별로는 남성이 77~78%, 여성이 22~23%,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58~59%, 전문대이상 41~42%, 연령별로는 50대 미만이 약 48%, 50대가 약 23%, 60대 이상이 약 28% 정도이며, 평균연령은 2012년 52.1세에서 2016년 55.6세로 서서히

2) 샘플 수가 작아서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단, 년도별로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년도별 패널가구수는 약간씩 차이가 발생한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변수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평균소득이 2012년 4,110.5만원에서 2016년 4,916.3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상태별로는 일시적 자영업이 약 16%, 계속자영업이, 약 17%, 불안정임금노동이 약 17.5%, 안정임금노동이 약 30%, 미취업인구가 약 18.5%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 경험 집단이 33% 정도임을 알 수 있다.⁴⁾

[표 2]는 2012~2016년 5년 동안 고용상태를 연령집단별로 교차해서 살펴본 것이다. 연령별로 50세 미만에서는 안정임금노동 비중이 48.9%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에서는 안정임금노동(25.1%)과 계속 자영업(25.1%), 불안정임금노동(23.4%)의 순으로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미취업(49.4%), 계속자영업(19.1%), 일시적 자영업(1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0세 미만에서는 임금노동이 비중이 66.5%로 가장 높고, 50대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42.1%로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미취업 인구가 49.4%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기초통계표

(단위: 명, %, 세, 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성별	남성	5,058 (78.2)	5,090 (77.7)	5,078 (77.2)	5,056 (76.9)	3,691 (76.5)
	여성	1,409 (21.8)	1,459 (22.3)	1,499 (22.8)	1,516 (23.1)	1,133 (23.5)
학력	고졸이하	3,827 (59.2)	3,855 (58.9)	3,867 (58.8)	3,865 (58.8)	2,826 (58.6)
	전문대이상	2,640 (40.8)	2,694 (41.1)	2,710 (41.2)	2,707 (41.2)	1,998 (41.4)
연령	50대 미만	3,083 (47.7)	3,140 (48.0)	3,159 (48.0)	3,153 (48.0)	2,331 (48.3)
	50대	1,507 (23.3)	1,524 (23.3)	1,526 (23.2)	1,529 (23.3)	1,120 (23.2)
	60대 이상	1,877 (29.0)	1,885 (28.8)	1,892 (28.8)	1,890 (28.8)	1,373 (28.5)
	평균연령	52.1	52.9	53.8	54.7	55.6
소득	소득1분위	1,364 (21.1)	1,444 (22.1)	1,449 (22.0)	1,466 (22.3)	1,098 (22.8)

4)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 비중이 26%인 것을 고려하면 자영업 경험 비중이 33%인 것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 글에서는 지난 5년간 자영업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일시적 자영업으로 정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표본이 자영업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득2분위	1,299 (20.1)	1,284 (19.6)	1,289 (19.6)	1,271 (19.3)	935 (19.4)
	소득3분위	1,266 (19.6)	1,306 (19.9)	1,290 (19.6)	1,262 (19.2)	874 (18.1)
	소득4분위	1,316 (20.4)	1,265 (19.3)	1,262 (19.2)	1,251 (19.0)	921 (19.1)
	소득5분위	1,222 (18.9)	1,250 (19.1)	1,287 (19.6)	1,322 (20.1)	996 (20.7)
	평균소득(경상)	4,110.5	4,338.6	4,557.8	4,747.7	4,916.3
고용상태	일시적자영업	1,041 (16.1)	1,049 (16.0)	1,054 (16.0)	1,054 (16.0)	831 (17.2)
	계속자영업	1,147 (17.7)	1,160 (17.7)	1,160 (17.6)	1,164 (17.7)	802 (16.6)
	불안정임금노동	1,134 (17.5)	1,154 (17.6)	1,158 (17.6)	1,158 (17.6)	852 (17.7)
	안정임금노동	1,935 (29.9)	1,964 (30.0)	1,981 (30.1)	1,977 (30.1)	1,446 (30.0)
	미취업	1,210 (18.7)	1,222 (18.7)	1,224 (18.6)	1,219 (18.6)	893 (18.5)
전체	6,467	6,549	6,577	6,572	4,824	

[표 2] 고용상태·연령별 표본의 구성

	연령			합계
	50세 미만	50-59세	60세 이상	
일시적 자영업	496 (15.7)	261 (17.0)	303 (16.0)	1,060 (16.1)
계속 자영업	419 (13.3)	385 (25.1)	361 (19.1)	1,165 (17.7)
불안정임금노동	558 (17.6)	360 (23.4)	243 (12.8)	1,161 (17.6)
안정임금노동	1,545 (48.9)	385 (25.1)	51 (2.7)	1,981 (30.0)
미취업	145 (4.6)	145 (9.4)	936 (49.4)	1,226 (18.6)
합계	3,163 (48.0)	1,536 (23.3)	1,894 (28.7)	6,593 (100.0)

2) 연령별·고용상태별 소득계층 이동

[표 3]는 고용상태별, 연령별 이동성지수, 상향이동지수, 하향이동지수를 보여준다. 2012년과 2016년 두 시점에서 이행행렬을 바탕으로 이동성지수를 계산하였다.⁵⁾ 일시적 자영업과 불안정임금 노동의 이동성이 계속 자영업이나 안정임금노동에 비해 큰 가운데, 일시적 자영업과 불안정임금노동은 상향이동보다 하향이동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계속 자영업과 안정임금노동은 하향이동보다 상향이동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향이동의 가능성은 안정임금 노동이 0.330으로 가장 높고, 계속 자영업(0.274), 일시적 자영업(0.259), 불안정임금노동(0.253), 미취업(0.224) 순으로 낮아지고, 하향이동의 가능성은 미취업이 0.367로 가장 높고, 불안정임금노동(0.299), 일시적 자영업(0.288), 계속 자영업(0.260), 안정임금노동(0.223)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 경험 집단만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자영업 지위를 유지한 계속자영업은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약간 높고, 자영업 지위가 불안정했던 일시적 자영업은 하향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이동성 지수는 50대가 0.617로 가장 낮고, 50대미만이 0.628, 60대 이상이 0.635로 60대 이상의 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동의 방향성을 보면, 상향이동지수는 50대 미만이 0.296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하향이동지수는 60대 이상이 0.326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상향이동이 하향이동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표 3] 고용상태별·연령별 이동성 지수

		이동성	상향이동	하향이동
고용상태	일시적 자영업	0.668	0.259	0.288
	계속 자영업	0.625	0.274	0.260
	불안정임금노동	0.677	0.253	0.299
	안정임금노동	0.623	0.330	0.223
	미취업	0.703	0.224	0.367
연령	50미만	0.628	0.296	0.243
	50대	0.617	0.275	0.257
	60이상	0.635	0.228	0.326

5) 패널개체별로 2012년이 결측치인 경우 2013년 값으로 대체했으며, 2016년이 결측치인 경우 2015년 값으로 대체했다. 예를 들어, 2012년 값이 결측치일 경우 2013년과 2016년 두 시점에서 소득분위 변화를 이행행렬에 반영했으며, 2016년 값이 결측치일 경우 2012년과 2015년 두 시점에서 소득분위 변화를 이행행렬에 반영했다.

이번에는 고용상태별 소득계층 이동을 연령 변수를 통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시적 자영업의 경우는 상향이동보다는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을 통제할 경우에는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50대 미만에서는 이동성도 0.791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상향이동지수도 0.310으로 하향이동 지수 0.277보다 높다. 하지만 50대에서는 이동성(0.663)이 하락하고 있으며, 상향이동 지수와 하향이동 지수가 0.272로 같은 수준이다.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이동성은 0.689로 증가하지만, 이번에는 상향이동 지수는 0.222로 더욱 하락하는 반면, 하향이동 지수는 0.365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자영업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성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일시적 자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0대 미만에서는 상향이동 지수가 0.334, 하향이동 지수가 0.244이며, 50대에서는 상향이동 지수가 0.304, 하향이동 지수가 0.247로 두 연령대에서는 지난 4.5년간 자영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상향이동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상향이동 지수가 0.248인 반면, 하향이동 지수는 0.293으로 일시적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하향이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불안정임금노동의 경우에도 계속자영업의 경우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상향이동 보다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다. 상향이동 지수는 50세 미만 0.270, 50대 0.255, 60대 이상 0.230으로 점차 하락하는 반면, 하향이동 지수는 50세 미만 0.290, 50대 0.302, 60대 이상 0.33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정임금노동은 다른 고용상태와 비교해서 이동성이 제일 낮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상향이동 지수가 하향이동 지수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0세 미만과 50대에서 상향이동 지수가 각각 0.340, 0.320으로 높은 수준이며, 60세 이상에서도 상향이동 지수가 0.268로 하향이동 지수 0.247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정적으로 임금노동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계층 이동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동성이 가장 높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하향이동 가능성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이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향이동 지수는 50대가 0.262로 가장 높고 50대 미만이 0.233, 60대 이상이 0.218인 반면, 하향이동 지수는 50대 미만이 0.387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0.371, 50대가 0.322이다. 50대 미만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을 경우 소득계층 하락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변수를 통제할 경우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성은 자영업 계층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계속 자영업의 경우 60세 이하에서는 하향이동보다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지만, 60세

이상에서는 관계가 역전되어 하향이동 가능성이 상향이동 가능성보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자영업과 불안정임금노동을 비교해 보면, 60세 이하에서는 일시적 자영업이 불안정임금노동에 비해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방향성이 역전되어 일시적 자영업이 불안정임금노동에 비해 상향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6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60세 이상에서는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안정임금노동은 물론 불안정임금노동에 비해서도 적절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연령별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 지수

	50미만			50대			60이상		
	이동성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상향이동	하향이동
일시적 자영업	0.791	0.310	0.277	0.663	0.272	0.272	0.689	0.222	0.365
계속 자영업	0.726	0.334	0.244	0.667	0.304	0.247	0.638	0.248	0.293
불안정 고용	0.713	0.270	0.290	0.694	0.255	0.302	0.665	0.230	0.334
상용직	0.640	0.340	0.222	0.613	0.320	0.226	0.553	0.268	0.247
미취업	0.783	0.233	0.387	0.770	0.262	0.322	0.678	0.218	0.371

3) 자영업 경험에 따른 소득이동성 시계열 추이

앞에서 자영업 경험은 60세를 전후로 소득계층 이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60세 이전에는 자영업이 소득이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60세 이후에 자영업 경험은 소득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는 5년간 소득이동성을 매년 소득이동 추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t기의 소득분위별로 상향이동 확률 PU_s^t 와 하향이동 확률 PD_s^t 을 계산하여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전체 표본을 놓고 볼 때, 그 동안 이동성은 계속 하락해 왔다. 이것은 그만큼 계층고착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분위별로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확률을 보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상향이동 확률은 12-13년 18.1%에서 계속 하락하여 15-16년에는 14.2%까지 하락했다. 소득2분위와 3분위 계층의 경우에도 상향이동확률은 소폭 하락했다. 반면 4분위 계층의 경우 상향이동 확률은 12-13년 16.2%에서 15-16년 19.3%로 상승했다. 하향이동의 경우에는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모든 소득분위에서 하락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중·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계층고착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12-2016년 5년간 소득계층 이동 : 전체 표본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2→13	18.1	25.8	23.8	16.2	19.4	23.2	28.7	21.9	0.443
13→14	17.0	23.7	22.9	16.2	15.9	19.4	24.9	18.8	0.397
14→15	14.4	23.5	22.8	17.8	14.6	19.3	22.4	19.4	0.385
15→16	14.2	21.2	22.1	19.3	14.1	19.7	20.2	17.1	0.370

다음으로 자영업 경험에 따른 소득이동성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시적 자영업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이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 동안 이동성이 계속 하락해 왔다. 1분위와 2분위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각각 27.0%에서 15.2%, 34.5%에서 20.7%로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하향이동 확률은 소폭 하락했다. 소득 4분위에서는 상향이동확률이 11.6%에서 19.1%로 증가한 반면, 하향이동 확률은 41.6%에서 29.9%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표 6] 2012-2016년 5년간 소득계층 이동 : 일시적 자영업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2→13	27.0	34.5	24.5	11.6	20.9	28.2	41.6	27.9	0.541
13→14	26.8	24.6	31.6	13.2	21.7	23.1	32.8	31.6	0.514
14→15	20.8	27.3	25.7	17.5	17.4	26.2	32.1	32.0	0.497
15→16	15.2	20.7	23.4	19.1	17.0	24.0	29.9	28.0	0.444

계속 자영업의 경우 이동성은 매우 빠르게 하락해 왔다. 이동성 지수가 12-13년 0.531에서 15-16년 0.404까지 하락했다. 소득3분위의 상향이동확률이 31.0%에서 32.5%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확률이 하락했다. 그 중에서 소득1분위의 상향이동 확률이 12-13년 34.1%에서 15-16년 20.4%로 빠르게 하락했다. 지난 4-5년간 계속 자영업을 유지해

은 경우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2분위에서 5분위까지 하향이동확률도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계층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12-2016년 5년간 소득계층 이동 : 계속 자영업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2→13	34.1	29.2	31.0	21.0	17.8	22.2	29.5	27.4	0.531
13→14	24.4	28.4	31.7	21.6	14.0	22.1	27.7	23.0	0.482
14→15	12.5	26.3	26.3	22.7	11.2	22.8	25.7	22.1	0.424
15→16	20.4	24.2	32.5	19.9	10.5	14.3	20.4	19.5	0.404

그러면 이번에는 60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자영업 경험에 따른 소득이동성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60세 이상이면서 일시적 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 5년 동안 이동성은 빠르게 하락해 왔는데, 그것은 주로 상향이동 가능성이 빠르게 줄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상향이동 확률이 소득 1분위에서는 12-13년 18.6%에서 15-16년 8.1%, 소득 2분위에서는 12-13년 23.3%에서 15-16년 10.1%, 소득 3분위에서 12-13년 19.2%에서 15-16년 13.3%로 줄었다. 4분위에서만 상향이동 확률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하향이동의 경우는 3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향이동 확률이 소득 2분위에서는 12-13년 25.6%에서 33.3%, 소득 3분위에서는 12-13년 38.5%에서 41.7%로 증가했다. 소득 4분위에서 12-13년 57.9%에서 15-16년 50.0%, 소득 5분위에서 12-13년 26.9%에서 15-16년 25.0%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표 8] 2012-2016년 5년간 소득계층 이동 : 일시적 자영업(60세 이상)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2→13	18.6	23.3	19.2	5.3	25.6	38.5	57.9	26.9	0.538
13→14	15.9	18.2	15.9	15.4	29.1	36.5	51.3	30.6	0.527
14→15	11.7	13.7	14.1	17.9	32.7	36.6	48.7	31.8	0.506
15→16	8.1	10.1	13.3	6.7	33.3	41.7	50.0	25.0	0.417

60세 이상이면서 계속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반적인 이동성은 일시적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자영업과 달리 이것은 주로 하향이동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속자영업의 경우 상향이동 확률은 소득 1분위에서만 12-13년 29.3%에서 15-16년 12.8%로 빠르게 감소해왔고, 나머지 소득분위에서는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하향이동 확률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감소했다. 60세 이상이면서 계속자영업을 하는 경우 계층 하락을 경험하기보다는 현재 소득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2012-2016년 5년간 소득계층 이동 : 계속 자영업(60세 이상)

	상향이동				하향이동				이동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2→13	29.3	17.1	21.1	17.6	24.8	33.3	33.3	34.3	0.528
13→14	23.2	16.7	25.8	19.2	23.5	35.0	34.3	36.1	0.541
14→15	15.3	18.1	22.7	17.9	19.0	34.5	32.6	29.5	0.399
15→16	12.8	17.7	21.4	12.0	16.1	26.2	28.0	25.8	0.397

앞에서 자영업 경험은 60세를 전후로 소득계층 이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시계열 추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시적 자영업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소득계층 하락의 위험이 점점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4) 소득이동성에 대한 패널로짓 분석

이번에는 전체 표본 및 연령집단별로 상향이동에 대한 패널로짓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종속변수는 t 년과 $t+1$ 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상승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과 성별, 학력, 전년도 소득분위를 포함했으며, 고용상태별로 상향이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상향이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분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대략 47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향이동 확률도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상향이동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상향이동 확률이 더 높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상향

이동 확률이 높다. 전년도 소득분위 변수의 경우에는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볼 때,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상향이동 확률은 감소한다. 다만 소득 5분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고용상태에 따른 상향이동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자. 일시적 자영업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계속자영업 유형은 상향이동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반면 불안정임금노동 유형은 일시적 자영업에 비해 상향이동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임금노동의 경우에도 일시적 자영업에 비해 상향이동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미취업 집단의 경우는 일시적 자영업에 비해 상향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자영업 경험이 임금노동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표본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패널로짓 분석을 할 경우에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고용상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계수의 부호가 전체 표본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집단에 대해서는 고용상태에 따른 계수값에 차이가 나타난다. 50대 연령 집단의 경우에는 일시적 자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안정임금노동과 미취업의 경우 상향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계속 자영업의 경우 상향이동 확률은 여전히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안정임금노동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가 양(+)의 부호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일시적 자영업과 비교해서 불안정임금노동의 계수가 양(+)의 부호로 전환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안정임금노동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미취업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시적 자영업이 계속 자영업이나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노동 모든 경우에 비해 상향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영업 경험 집단이 임금근로나 미취업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이동이 활발하고 소득계층 상승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연령집단별로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세 미만에서는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50대에서는 일시적인 자영업 경험은 불안정 임금노동에 비해서는 낮지만 안정적인 임금노동에 비해서는 소득계층 상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일시적인 자영업 경험은 불안정임금근로에 비해서도 소득계층 상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시적 자영업 경험은 미취업보다는 낮지만 임금근로나 계속자영업에 비해서는 소득계층 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영업 경험에 따른 소득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자영업 경험은 60세를 전후로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소득계층 상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전체표본·연령집단별 상향이동 패널로지 분석

종속변수 (상향이동=1)	전체	50세 미만	50대	60세 이상
연령	0.1601***	-	-	-
연령제곱	-0.0017***	-	-	-
성별(남성=1)	0.5818***	0.4788***	0.4620***	0.9065***
학력(전문대졸=1)	0.3820***	0.3159***	0.2328*	0.6329***
소득2분위	-0.4729***	-1.0936***	-0.2476*	-0.1387
소득3분위	-0.8761***	-1.6421***	-0.4815***	0.0254
소득4분위	-1.4186***	-2.1441***	-1.0028***	-0.4946**
소득5분위	-22.3489	-21.8175	-25.257	-28.4481
계속자영업	0.2451***	0.2753**	0.2260*	0.3492**
불안정임금노동	-0.2927***	-0.4938***	-0.3420**	0.2689*
안정임금노동	-0.1106	-0.1446	0.1262	0.2329
미취업	-0.8678***	-1.4573***	-0.9024***	-0.7161***
2013년	0.0791	0.0088	0.0875	0.4151***
2014년	0.0156	0.0082	-0.06	0.2327
2015년	0.0145	0.0384	0.0132	0.0193
2016년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상수	-4.4794***	-0.0851	-0.9024***	-2.7693***

5.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5년간 자영업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자영업 경험 집단으로 구분하고,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자영업 지위를 유지했으면 계속 자영업,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일시적 자영업으로 정의하였다. 자영업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지난 5년

간 계속해서 상용직 지위를 유지했으면 안정임금노동,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안정임금근로와 미취업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Shorrocks의 이동성 지수를 계산함과 동시에, 이동성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상향이동 지수와 하향이동 지수를 통해 이동의 방향성까지 파악해보았다.

연구 결과 전체 표본을 놓고 봤을 때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이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 집단의 경우 연령집단에 따라 소득계층 이동 패턴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미만과 50대 계층에서는 계속 자영업과 일시적 자영업 집단 모두 상향이동 지수가 하향이동 지수보다 높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계속 자영업 집단의 경우에도 하향이동 가능성이 상향이동 가능성보다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 일시적 자영업 집단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불안정 고용 집단에 비해서도 하향이동 지수가 높았다. 이로써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60세를 전후로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 다른 가교일자리와 비교해서도 빈곤탈피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동성이 계속 하락하고, 소득 1분위 계층의 상향이동 확률이 계속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계층고착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시적 자영업과 계속 자영업 집단의 경우 소득 1-2분위 저소득 계층의 상향이동 확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 4-5년간 자영업 선택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자영업 경험은 60세를 전후로 소득계층 이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0세 이전에는 자영업 경험은 일시적 자영업이든 계속 자영업이든 임금노동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계층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50대에서도 자영업 경험은 가교일자리로서 어느 정도 빈곤탈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50대에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경험했던 집단에서는 상향이동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4-5년간 계속해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향이동 지수가 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영업 경험이 오히려 계층하락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60대에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경험한 집단은 불안정임금근로 집단에 비해서도 하향이동의 위험이 크며, 지난 4-5년간 계속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라도 60세를 넘어서게 되면 상향이동보다는 하향이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60세 이상에서는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나 빈곤탈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자영업 현상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령화, 그리고 미흡한 노후소득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포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본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연령별로 자영업 일자리가 갖는 의미는 매우 상이한 만큼 연령집단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0대 미만에서는 여전히 자영업이 소득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주된 일자리로 역할한다고 할 수 있으며,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부버들에게 자영업은 주된 일자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교일자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0세 이후에서는 자영업은 가교일자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50세 미만 연령 집단에게는 경력이나 역량이 적합한 업종으로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할 시점에 있는 50대 중년층에게는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시점에서 자영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의 연령집단에 대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대안적인 일자리들을 늘리는 대신 자영업 의존성은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강신욱(2011).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보건·복지 Issue & Focus, 93, 1-8.
-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1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승, 조준모(2009). 고용형태에 따른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 분석. 금재호외(편)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1, 180-205.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도균(2015).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경제와사회, 통권 제108호, 73-107.
- 김복순(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7-18.
- 김성태, 전영준, 임병인(2012).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60집 제4호, 5-41.
- 김용성(2014).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대한 연구: 학력계층을 중심으로. 김용성, 이주호(편).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세종: KDI.
-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勞動經濟論集, 23권 특별호, 55-80.
- 김태일(2017).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은 누구인가. 김도균외(편).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후마니타스.
- 김혜련(2007). 우리나라의 소득이동 및 빈곤의 동태적 분석-'99~'02년과 '03~'06년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RI Issue Paper No. 2007-01.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 민인식, 최필선(2012).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미현(2012). 중고령자 자영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세 전후 창업 비교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2), 31-49.
- 반정호(2012).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29-56.
- 석상훈(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25-44.
- 성명재(2011).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변화추이 분석. 재정포럼, 177, 47-63.
- 성지미(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53-80.
- 성미지, 안주엽(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勞動經濟論集, 27(2), 1-27.
- 안주엽(2000).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勞動經濟論集, 23권 특별호, 109-132.
- 안주엽, 성지미(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勞動經濟論集, 25(1), 1-30.

- 윤정열, 홍기석(2012). 우리나라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論集*, 35(2), 43-77.
- 이경희, 민인식(2016).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훈, 신재열(2011). 자영업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92, 247-274.
- 이승렬(2011). 지난 10년간의 자영업을 되돌아 본다.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1-3.
- 장지연(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자영업 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95-121.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금재호, 류재우, 전병유, 최강식(편).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134-163.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장지연, 홍민기, 윤자영, 조준모, 신동균, 이형오(2008). *고령자 고용정책의 고용효과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영순, 박미현(2013). 50세 이후 창업한 중고령자의 창업 지속가능성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9(1), 227-254.
- 조준모(2006). 경기변동이 자영업 진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동태적 연구: 월간 단기패널을 이용한 분석. 금재호, 윤미례, 조준모, 최강식(편).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101-129.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지은정(2012).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3(2), 141-178.
- Fields, G.S. and Efe A. Ok(1999). Measuring Movement of Income. *Economica*, 66(264), 455-471.
- Gardiner, K. and J. Hills(1999). Policy implications of new data on income mobility. *The Economic Journal*, 109(453), F91-F111.
- Georgellis, Y. J.G. Sessions and N. Tsitsianis(2005). Self-Employment Longitudinal Dynam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Economic Issues*, 10(2), 51-84.
- Jenkins, S.(2011). *Changing Fortunes : Income Mobility and Poverty Dynamics in Britai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Shorrocks, A.F.(1978).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46(5), 1013-1024.

Abstract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Business and the Income Mobility by Age Group

Dokyun Kim*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what impact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business have had on the income mobility. Since 2000s, th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and the population aging led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elf-employed job as many retirees at the age of early 50s has set up the self-employed business as a bridge job. However, previous researches just have emphasized on the impoverishment of the self-employed, but not focused on what different effect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d on the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in the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and employment status, and analyses its longitudinal trends. According to the result, as a whole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s positive effect on the upper mobility of income class, but it become disadvantageous for the upper mobility as the age goes up. When belonging to the age group over 60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rather increases the risk of lowering income class. Just a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s different effects on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so the differentiated measures for age groups are demanded.

Key Words: bridge job, impoverishment of the self-employed, mobility, upper mobility, lower mobility

◆ 2018. 4. 29. 접수 / 2018. 6. 14. 1차수정 / 2018. 6. 20. 게재확정

* Gyeonggi Research Institute(email address: dkkim@gri.re.kr)